

생 빅토르의 리카르두스의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 연구

정태영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조교수

들어가는 말

1. 성독수련을 통해 생겨나는 정서(레아)의 열매들

1.1. 두려움(르우벤)

1.2. 고통(시메온)

1.3. 희망(레위)

1.4. 사랑(유다)

2. 상상(빌하)과 감각(질파)의 수련과 그 이후에 생겨나는 정서의 열매들

2.1. 트란스라시오(단)/콤포라시오(납탈리)

2.2. 절제(가드)/인내(아세르)

2.3. 내적 기쁨(이사가르)

2.4. 악에 대한 미움(즈불룬)

2.5. 수치심(디나)

3. 영적 성장을 통해 생겨나는 이성(라헬)의 열매들

3.1. 식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앎(요셉)

3.2. 관상(벤야민)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12세기에 생겨난 시토회, 카르투지오회, 생 빅토르 규율 사제단에서는 수련을 통한 내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그 중 생 빅토르회는 내적인 삶과 이웃사랑의 실천 사이의 균형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리카르두스(Richard de Saint-Victor, 1110-1173)가 입회한 1140년 후반 파리의 생 빅토르 규율 사제단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Gregorius VII, 1015 - 1085)가 시작한 개혁의 중심지였다.¹⁾

리카르두스는 1159년에 생빅토르 규율사제단의 부수련장이 되었고, 1162년부터 1173년까지 수련장으로 지냈다. 그는 생빅토르 규율 사제단 내에서 수련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동료들을 위한 조언자의 역할도 하였다. 수사본에서는 그를 자주 ‘스승’(magister)라고 부른다. 리카르두스의 대부분의 저서는 수련자가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cogitationes)과 느낌(affectiones)을 본문에 따라 모방적으로 구성하도록 제시한다. 그가 쓴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De praeparatione animi ad contemplationem or Benjamin minor)²⁾과 『신비로운 방주: 대벤야민』(De archa mystica or Benjamin major)은 영성사 안에서 신비주의에 대해 조직적으로 다룬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³⁾ 이 작품들에서는 관상적 삶을 위한 준비와 관상의 단계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은 1153-116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⁴⁾ 본문의 내용은 아랍과 그의 자녀들부터 수련자가 닮아야 할 도덕적 의미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열두 성조 이야기』(De duodecim patriarchis)라는 제목으로도 전해진다. 이 작품은 그가 쓴 작품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다.⁵⁾ 오늘날까지 50여개의 수사본이 남아있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본래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

* 본 연구는 202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Dale M. Coulter., *Per visibilia ad invisibilia: theological method in Richard of St. Victor (d. 1173)*, (Turnhout: Brepols, 2006), 19-20.

2) 성서인물명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경』을 따랐다.

3) 이러한 견해는 요셉 에브너(Joseph Ebner), 버나드 맥긴(Bernard McGinn), 마리 체누(M.-D Chenu) 등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Ineke van 't Spijker, *Fictions of the Inner Life Religious Literature and Formation of the Self in the Eleventh and Twelfth Centuries*, (Turnhout, Brepols, 2004), 130.

4)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and Visions of Light in Richard of St Victor’s Teaching on Contemplation”,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46(1977, 3), 190.

5) 하지만 이 책은 신비주의에 관한 설명서이기보다는 읽는 사람의 삶을 위한 길잡이다. Ineke van 't Spijker, *Fictions of the Inner Life*, 136.

다.6) 이 작품은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수도원들의 도서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책이었다.7)

13세기 이후 교회가 관료화되고, 신학이 사변화된 이후 신자들은 오랫동안 외적인 대중신심에 기댄 신앙생활을 해야 했고, 그것으로는 내적인 갈망을 충분히 채울 수 없었다. 그들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시대에 쓰여진 영성저자들의 글을 다시 찾게 되었다. 생 빅토르 리카르두스의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12세기의 작품속에서 16세기 사람들이 다시 발견한 것은 ‘수련’과 ‘영성지도’였다. 성경을 읽고 본받으며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로드맵’과 그것을 동반해 줄 ‘안내자’를 양성하는 일이 12세기 영적 저자들이 했던 일이고, 또한 16세기에 로올라의 이냐시오(Ignatius de Loyola, 1491-1556)와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de Ávila, 1515-1582), 십자가의 성요한(Juan de la Cruz, 1542-1591)이 이어받은 일이었다.

리카르두스가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자민』을 쓴 목적은 수련자가 내면을 향하고,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수련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있다.8) 그의 성서주석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내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9)

인간의 영혼이 ‘이성적 능력’ 안에 하느님의 ‘모상(imago)’을 담고 있고, ‘정서적 능력’ 안에 하느님과의 ‘닮음(similitudo)’을 담고 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비록 죄로 인하여 훼손되었으나 우리의 영혼은 도덕적 삶과 수련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고, 하느님의 현존을 마주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다. 그는 신비적 관상의 ‘탈혼적 본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한 내적 준비로서 ‘도덕적 삶과 수련’을 강조하였다.10)

6) Richard de Saint-Victor, “Les douze Patriarches ou Beniamin minor”, in *Sources Chrétiennes* 419, tran. and ed., Jean chatillon/ Monique Duchet-Suchaux, (Paris, Cerf, 1997), 61-62.

7) Jack Ford, “Jacob’s Family as a Symbol of Affectivity in Cistercian and Victorine Psychology”, *Archa Verbi*, 18(2021), 42. 샤틀롱(Jean Châtillon)은 150개, 고이(Rudolf Goy)는 225개를 보고하고, 시카르(Patrice Sicard)는 다시 25개의 수사본이 더 발견되었다고 보고한바 있다. 따라서 총 250여개의 수사본이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의 내용을 부분적이나마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1.

9) Ineke van ’t Spijker, *Fictions of the Inner Life*, 129.

10) Boyd Taylor Coolman, “The Victorines.”,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Mysticism*, ed., Julia A. Lamm, (Blackwell Publishing, 2013), 255-256.

이성으로부터 올바른 의견이 생겨나고, 정서로부터 거룩한 갈망들이 나옵니다. [...] 그러므로, 정서가 의로움의 법을 완수하도록 스스로 애쓸 때, 참으로 리아가 존재하기 시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그 최고의 참된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질 때 분명히 라헬의 존재가 얻어집니다.¹¹⁾

잭 포드(Jack Ford)는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를 리카르두스가 수련자의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수련자가 닦아야 할 덕목들을 잊지 않도록 돕기 위한 기억 장치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¹²⁾ 그리고 그루버 진(Grover A. Zinn)은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 순서는 수련자가 마음을 정돈하고 고요해지기 위해 행해야 하는 ‘수련들과 거기서 생겨나는 덕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본다.¹³⁾ 또한 오르스본(David Allison Orsbon)은 수련자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한 ‘체험적 주석’이라고 한다.¹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리카르두스의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을 ‘수련과 영성지도를 위한 로드맵’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수련장으로서 또 영성 지도자로서 그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수련을 시켰을까? 그리고 동료 영성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였을까?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자.

1. 성독수련을 통해 생겨나는 정서(레아)의 열매들

서방 교회에서 ‘정서’(affectio)와 ‘정서의 움직임’(affectus)은 성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 AD 354-430)의 전통을 따르는 성 베르나르두스(Bernardus Claraevallensis, 1090-

11) Ex ratione oriuntur consilia recta, ex affectione desideria sancta. Sciendum itaque est quod affectio tunc veraciter incipit Lia esse, quando satagit seipsam ad normam iustitiae componere. Et ratio Rachel esse indubitanter asseritur, quando illius summae et verae sapientiae luce illustratur. Richardi A Sancto Victore, “De praeparatione animi ad contemplationem liber dictus Benjamin Minor”, in *Patrologia latina*, 196, ed J.-P. Migne, (Pariss, Bibliothecae Cleri Universae, 1855), 3C. 이하 ‘P.L. 196, 쪽수’ 로 표기

12) Jack Ford, “Jacob’s Family as a Symbol of Affectivity in Cistercian and Victorine Psychology.” *Archae Verbi*, 18 (2021), 73.

13)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2.

14) David Allison Orsbon, “Restoration through Experiential Exegesis”, in *Victorines Restoration: Essays on hugh of st victor, richard of st victor, and thomas gallus*, ed., Porwoll, R.J., Orsbon, D.A. (Brepol, 2021), 206, 212, 218.

1153), 생 빅토르의 리카르두스(Richard de Saint-Victor, 1110-1173), 리에보의 엘레드(Aelredus Rievallensis, 1110 - 1167) 등을 통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¹⁵⁾ 특별히 리카르두스의 작품들은 후대에 관상과 신비주의에 대해 논의할 때 자주 인용되었다.¹⁶⁾ 리카르두스가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에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 것은 ‘정서

- 15) Charles André Bernard, *Teologia spirituale*, (Torino, Edizioni San Paolo, 2002), 194; 생 빅토르의 후고(Hugo de Sancto Victore, 1096-1141)도 신심으로 인한 ‘정서적 움직임’ 안에 모든 기도의 덕이 있다고 하였다. In affectibus pietatis est omnis virtus orandi[...] omnes enumerare non possumus (infiniti enim sunt affectus) Hugonis De S. Victore, “De modo Orandi”, in *Patrologia Latina* 176, ed., J-P Migne, (Paris, Bibliothecae Cleri Universae, 1854), 985B. 이하 ‘P.L. 176, 쪽수’로 표기; Boyd Taylor Coolman, *The Victorines*, 251-252. 중세 생 빅토르 규율사제단의 신비전통은 하나님의 가능성(capax Dei)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할지에 대한 정교한 개념들을 제시한다. 또한 그들은 ‘도덕’과 ‘신비’를 통합하였다. 그들에게 도덕적 양성은 하나님의 신비적 만남을 위한 영혼의 준비이다. 그들에게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 16) Torsten K. Edstam., “The Reception of the Victorines in Later Centuries”, in *A Companion to the Abbey of Saint Victor in Paris*, Ed., Hugh Feiss/Juliet Mousseau, (Boston: Brill, 2017), 565; ㉑15세기에 몽바에(Johannes Mauburnus, 1460-1501)는 12세기 영성저자들이 기도에서 정서적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정서적 움직임으로부터 생겨나는 기도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Puram itaque et mentalem orationem, venerabilis Hugo cum caeteris, eam aiunt, quando ex **abundantia devotionis**, mens ita succenditur, ut et pre amoris magnitudine obilviscat suae petitionis. Deo soli, unice cor intendens. Vocalis mera dicitur ea quae laborum tantum non cordis est. Ioannes Mauburnus, *Rosetum exercitioum spiritualium, et sacrarum meditationum*, (Bruxell, Dvaci, 1620), 10; 몽바에는 북유럽에서 생겨난 새신심운동(devotio moderna)을 프랑스로 전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Dom Guy-Marie Oury, *Histoire de la spiritualité*, (Tours, C.L.D, 1993), 172; ㉒16세기에 성이냐시오(Ignatius de Loyola, 1491-1556)도 같은 맥락에서 ‘무질서한 정서적 움직임’(afecciones desordenadas)을 없애도록 우리정신을 준비하는 모든 방법을 영신수련이라고 한다. S. Ignazio di Loyola, *Esercizi Spirituali*, (Torino, Edizioni San Paolo, 1995), 64; 로울라의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정제천 옮김, (서울,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016), 12; ㉓ 십자가 성요한(Ioannes a Cruce, 1542-1591)도 기쁨, 희망, 고통, 두려움의 네 가지 ‘정서적 움직임’(afecciones)이 이성적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질서 지워지면 우리 영혼의 힘이 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고 말한다; 십자가의 성요한, 『가르멜의 산길』, 최민준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18), 340. San Juan de la Cruz, *Subida al Monte Carmelo*, (Ivory Falls Books, 2015), 205; ㉔ 또한 20세기에는 정신 분석을 포함한 여러 심리학에서 인간의 정서적인 영역의 중요성을 드러내 줌으로서 영성가들과 영적 양성자들이 정서의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게 되었다.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 『영성신학, 정제천/박일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3), 259-260;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는 정서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정동(emotion), 감정(sentiment), 열정(passion)으로 구분한다. 정동은 공포감과 동정심, 불안같은 정신적 움직임이다. 이는 격렬한 육체적 움직임이 전제되며 정서적 자극에 대한 직접적 반응을 의미한다. 감정은 우정, 존경, 미움 등과 같은 것인데 이 감정들은 서서히 형성되며 이성의 승인과 지도를 받아 증대된다. 이 감정은 이성에 힘과 명료함을 준다. 열정은 어떤 정서적 상태가 긴 기간동안 행동전체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정서적 에너지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동원되는 것 같은 상태이다. 열정의 가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와 그 열정을 통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Ibid.*, 269.

적 성장의 일곱 단계'이다.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고통', '희망',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네 단계와 상상과 감각의 수련 후 생겨나는 '내적 기쁨'과 '악에 대한 미움'과 '수치심'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¹⁷⁾

거룩한 독서와 애덕 실천,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먼저 우리의 '정서'(affectio)가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능동적 반향 즉, '정서적 움직임'(affectus)들이 생겨난다.¹⁸⁾ 이때 '정서적 움직임'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영혼의 응답이다.¹⁹⁾

맥긴(McGinn)은 『소벤야민』에 영적 성장에 대한 섬세한 심리학적 이해가 담겨있다고 평가한다.²⁰⁾ 정서적 움직임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질서 잡히고'(ordinatus), 우리 이성의 식별을 통해 '조정되는'(moderatus)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맑음'과 '모상'은 새롭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새롭게 된 영혼은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²¹⁾

레아는 '정서'(affectio)를 의미하고, 라헬은 '이성'(ratio)을 의미한다. 또 정서는 '사랑'을 이성인 '맑음'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영혼의 내적인 삶을 주관한다.²²⁾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주어져 있다. 성경에 따르면 야콥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으나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7년을 지내야 했다. 이것은 수련자의 이성적 영혼이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 성경 안의 가려진 지혜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관상하고자 하지만 곧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자신을 정화하고 참회하며 정서와 상상, 감각들을 수련하고 식별을 통해 모든 것을 조정해야 관상에도 나아갈 수 있다.²³⁾

17) Bernard McGinn, *The growth of mysticism*, (New York, crossroad, 1994), 401.

18) Ex affectione desideria sancta[...] ex ista ordinati affectus. P.L 196, 3B; Est **amor ille** ardens et fervens **qui cor penetrat et affectum inflamat**, animamque ipsam eousque medullitus transfigit ut veraciter dicere possit: Vulnerata caritate ego sum. P.L 196, 1207D.

19) P. Pourrat, "Affections", in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ed., M. Viller,(Paris, Beauchesne, 1937), 238.

20) Bernard McGinn, *The Growth of Mysticism*, 403.

21) Boyd Taylor Coolman, *The Victorines*, 256. 리카르두스는 창조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태양은 우리의 신적 본성을 의미하고, 동물들은 우리의 육체적 감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창조적 질서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은 다시 하느님의 모상과 닮음으로 변화한다. 왜냐하면 덕과 선행이 우리 안에 자리잡게 되면, 이전에 죄로 인해 형상과 닮음을 잃었던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느님과 닮게 된다.' Ineke van 't Spijker, *Fictions of the Inner Life*, 135.

22) Ineke van 't Spijker, *Fictions of the Inner Life*, 138; 본 작품에서 '수련'(exercitium)이라는 단어는 총 17회 등장한다. 명사형(exercitium) 10회, 동사형(exercere) 7회.

성경을 라헬의 방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이야기의 장막 아래 거룩한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의심합니까? 그 침실에서 거룩한 독서 중에 영적인 이해가 얻어질 때마다 라헬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들을 꿰뚫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랫동안 라헬을 찾고 갈망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땀을 슬퍼하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칠뿐 아니라 얼굴이 붉어집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찾는 우리에게 이 눈땀이 당연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한 악행들이 달려옵니다. 더구나, 거룩한 독서는 원하지 않고, 피하려는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의 못난 모습을 자주 떠오르게 합니다. 성찰하는 동안 우리 마음은 괴롭습니다.²⁴⁾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고통’을 거쳐 ‘사랑’으로 나아가는 비슷한 과정이 후고(Hugues de Saint-Victor, 1096-1141)에게도 나타난다.²⁵⁾ 이것은 리카르두스가 자신의 영적 지도자로부터 전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²⁶⁾ 수련자는 거룩한 독서를 통해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신 하느님에 대해 ‘두려움’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고통’을 받아들인다. 이어서 하느님의 용서를 ‘희망’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수련자의 영혼은 관상적 삶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좀 더 알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적 실재의 초월적 세계에 대한 초보적 인식이 생기고 자라난다.²⁷⁾ 그리고 도덕적 쇄신이 일어나고 마음의 방향이 새롭게 된다.²⁸⁾

23) DiLorenzo, Raymond D. “Imagination as the First Way to Contemplation in Richard of St. Victor’s Benjamin minor.” *Medievalia et Humanistica*, 11(1982), 82.

24) Quid enim Scripturam sacram, nisi Rachel cubiculum dicimus, in qua sapientiam divinam sub decenti allegoriarum velamine latitare non dubitamus? In tali cubiculo Rachel totiens quaeritur, quotiens in lectione sacra spritualis intelligentia indagatur. Sed quamdiu adhuc ad sublimia penetranda minime sufficimus, diu cupitam, diligenter quaesitam Rachel nondum invenimus. Incipimus ergo gemere, suspirare, nostram caecitatem [4B] non solum plangere, sed et erubescere. Dolentibus ergo nobis et querentibus unde hanc caecitatem meruimus, occurrunt mala quae fecimus. Quinimmo, ipsa divina lectio, nobis nolentibus et aliud quiddam in ea molientibus, foeditatem nostram frequenter ingerit, et corda nostra in eius consideratione compungit. P.L., 196, 4AB.

25)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3: Primum a frigore orientis **timor** contra volumen nudus ascendit[...].In secunda depingitur **dolor**, et juxta eum transmigratio Babylonis incipiens a Joachim [...] Juxta tertiam scalam **amor** pingitur quasi una de virginibus cum ardente lampade et vase olei, **expectans** adventum sponsi. P.L., 176, 696C.

26)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The Mystical Ark; Book Three of The Trinity*. (New York: Paulist Press, 1979),14.

27)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3.

28)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3.

1.1. 두려움(르우벤)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해 성경말씀을 묵상하는 수련자의 정서 안에 생겨나는 첫 번째 정서적 움직임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거리를 인식하는 데서 생겨난다.²⁹⁾ ‘두려움의 덕’ 없이 다른 덕을 가질 수 없다. 두려움은 덕과 지혜의 시작이다.

‘하느님을 두려워함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첫째이고, 이것 없이 그대는 다른 덕의 자녀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갖고자 하는 이는 이미 저지른 악행과 그 악행의 크기를 판단하며 자주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이런 성찰에서 두려움이 태어납니다.³⁰⁾

1.2. 고통(시메온)

두려움에 이어 생겨나는 두 번째 정서적 움직임은 ‘고통’이다. 아직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보기에는 부족한 우리는 거룩한 독서를 하는 중에 자신의 못난 모습을 자주 떠올리게 되고 괴로워한다.³¹⁾ 이것은 참회의 고통이다.

첫 아들이 태어나 점점 자라고 있을 때 둘째가 태어납니다. 고통이 뒤따를 것을 걱정해서 큰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큰 벌을 두려워할수록 그만큼 더 저지른 잘못을 통렬하게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죄인이 회개하면 다시 태어나고, 구원될 것입니다.’³²⁾

29) *Ibid.*, 13.

30) Scriptum est : *Initium sapientiae timor Domini.*(Ps 110, 10) Haec ergo est prima virtutem proles, sine qua ceteras habere non potes. Qui talem filium habere desiderat, mala quae fecit, non solum frequenter sed et diligenter attendat, hinc magnitudinem sui sceleris, illinc potentiam iudicantis. Ex tali consideratione timor nascitur. P.L. 196, 6D.

31) Sed quamdiu adhuc ad sublimia penetranda minime sufficimus, diu cupitam[...] Incipimus ergo gemere, suspirare, nostram caecitatem non solum plangere, sed et erubescere. Dolentibus ergo nobis et querentibus unde hanc caecitatem meruimus, occurrunt mala quae fecimus. Quinimmo, ipsa divina lectio, nobis nolentibus et aliud quiddam in ea molientibus, foeditatem nostram frequenter ingerit, et corda nostra in eius consideratione compungit. P.L. 196, 4AB.

32) Primo filio nato, et paulatim crescente, secundus nascitur, quia magnum timorem necesse est ut dolor sequatur. Quanto enim quis vehementis metuit poenam quam meruit, tanto acerbius plangit culpam quam fecit. Sed sciendum quia *quacumque hora peccator conversus fuerit et ingenuerit, salus erit.*(Ez 18,21-22). P.L. 196, 7B.

1.3. 희망(레위)

하느님께 참회하는 이는 용서를 희망한다. 이어지는 세 번째의 정서적 움직임은 ‘희망’이다.

하지만 나는 질문합니다. 어떤 위로가 참회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용서에 대한 하나의 희망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셋째 아들 즉, 레위입니다. 그는 ‘더하기’, ‘참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어진 그 두 형들에 그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³³⁾

1.4. 사랑(유다)

두려움, 고통, 희망에 이어 네 번째로 생겨나는 정서적 움직임은 ‘사랑’이다. 이제부터는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우정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제 친근함이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이루어지고, 우정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분의 방문을 자주 받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다림으로 아직 위로는 아니지만, 언제나 여러 차례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어쩌면, 먼저 그분을 많이 두려워하면, 나중에 더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³⁴⁾

이렇게 해서 영성생활에 들어가기 위한 첫 네 가지 ‘정서’가 생겨난다. 신비적 삶에 들어가기 위한 최초의 단계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³⁵⁾ 이것은 중세 초기에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과 인간의 죄스러움에 대해 심각하게 강조하던 분위기와 달리 수도원과 재속 단체에서 ‘하느님과의 영적 우정’을 갈망하던 12세기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한 예시이다.³⁶⁾ 이제 수련자는 영적인 세

33) Sed quae, quaeso, consolatio potest esse paenitentibus vere et lugentibus amare, nisi una spes veniae? Hic est ille tertius filiorum iacob, qui iccirco Levi, id est additus vel additio vocatur, quia duobus illis prioribus prius datis, hic superadditur. P.L. 196, 7C.

34) Incipit ex tunc quaedam familiaritas inter Deum et animam fieri, et amicitia confoederari, eo quod haec se sentiat ab illo saepius visitari, et ex eius adventu non tantum iam consolari, immo aliquotiens quodam ineffabili gaudio repleti [...] Unde fit ut quem prius consueverat multum formidare, incipiat postmodum ardentem amare. P.L. 196, 8A.

35)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3.

36) David Allison Orsbon, *Restoration through Experiential Exegesis*, 214.

계에 깨어날 뿐 아니라 하느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기 시작한다.³⁷⁾ 이어서 상상력과 감각의 수련이 이어진다.

2. 상상(발하)과 감각(질파)의 수련과 그 이후에 생겨나는 정서의 열매들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지향을 바탕으로 수련자는 이제 상상과 감각의 수련에 들어간다.³⁸⁾ ‘상상’은 이성(라헬)을 돕고, ‘감각’은 정서(레이)를 돕는다. 상상 없이 이성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감각 없이 정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리아’는 영감으로 불붙은 ‘거룩한 정서’이고, ‘라헬’은 거룩한 계시로 ‘조명된 이성’입니다.[...] 정서는 감각을 이성은 상상을 자신의 시녀로 가집니다. 그래서 감각은 정서를 따르고 상상은 이성을 시중듭니다. 각 시녀는 자기 여주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들 없이는 온 세상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전해질 수 없습니다.³⁹⁾

단과 납탈리가 의미하는 ‘수련된 상상력’은 우리의 ‘내면을 질서잡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드와 아세르가 의미하는 ‘수련된 감각’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질서잡고 조정한다.

단을 통해서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악을 없애고, 가드를 통해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악을 물리칩니다.⁴⁰⁾[...] 납탈리는 안에서 단과 함께 시민들의 평화를 지키고, 아세르는 밖에서 가드와 함께 원수의 공격을 물리칩니다.⁴¹⁾

발하(상상)의 단점은 수다스러운 것이고, 질파(감각)의 단점은 잘 취하는 것이다. 발하

37)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4.

38) *Ibid.*, 14.

39) Nam Lia, ut dictum est, affectio est divina inspiratione inflammata, Rachel est ratio divina revelatione illuminata[...]Accepit ergo utraque illarum ancillam suam. Affectio sensualitatem, ratio imaginationem. Obsequitur sensualitas affectioni, imaginatio famulatur rationi. In tantum unaquaeque ancillarum dominae suae necessaria esse cognoscitur, ut sine illis mundus totus nil eis posse conferre videretur. P.L., 196, 4BC

40) Per Dan reprimuntur mala intus exurgentia, per Gad repelluntur mala exterius insurgentia. P.L. 196, 22A.

41) Neptalim intus cum Dan in civium pace componenda, Aser exterius cum Gad in violentia hostium expugnanda. P.L. 196, 23A.

는 항상 이미지와 환상을 제시한다. 질파는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한다.⁴²⁾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이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때문에 수련자가 내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⁴³⁾

2.1. 트란스라시오(단)/콤포라시오(납탈리)

상상은 첫째로, 감각이 경험한 것을 이성으로 옮겨주면서 이성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에 대한 지식의 기초를 제공한다.⁴⁴⁾ 즉 상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에 대한 앎의 출발점이다.

상상을 통하는 것 [...] 이것은 체험으로 아직 이 지식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의 관상에 들어가는 모든 이의 첫 번째 길입니다.⁴⁵⁾

리카르두스는 단의 역할인 ‘보이는 실재’를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실재’를 설명하는 것을 ‘트란스라시오’(translatio)라 하고, 납탈리의 역할인 ‘보이는 실재’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며 ‘보이지 않는 실재’에 대한 영적인 직관으로 넘어가는 것을 ‘콤포라시오’(comparatio) 또는 ‘콘베르시오’(conversio)라고 한다.⁴⁶⁾

말했듯이 ‘트란스라시오’도 자주 사용됩니다. 보이는 사물에 대한 묘사를 보이지 않는 사물의 의미에 옮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빛이라 이름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적혀 있듯이 그분은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사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비육체적입니다. 비가 시적이고 비육체적인 하느님의 본성이 거기에 사십니다. 이 빛은 하느님의 지혜임을 압니다. 지혜는 참 빛입니다.⁴⁷⁾ [...] 납탈리는 ‘콤포라시오’ 혹은 ‘콘베르시오’라고 해석됩니다. 보이

42) Zelpha temulenta. Balae namque loquacitatem nec ipsa eius domina Rachel compescere potest, sed et Zelphae quidem sitim dominae suae copiatanta omnino extinguere non potest. P.L. 196, 5D.

43) Ineke van 't Spijker, *Fictions of the Inner Life*, 139.

44)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4.

45) Per imaginationem[...]. Hanc esse primam viam omni ingredienti ad invisibilium contemplationem nemo ignorat, nisi forte quem ad hanc scientiam necdum experientia informat. P.L. 196, 10 B, D.

46) David Allison Orsbon, *Restoration through Experiential Exegesis*, 215;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5. 오스본과 진은 ‘콘베르시오’를 ‘트란스라시오’와 같은 의미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리카르두스의 원문에는 ‘콘베르시오’를 ‘콤포라시오’와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리카르두스의 원문을 따랐다.

는 사물의 인식을 영적인 직관으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바가 전부 영적인 직관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므로 변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⁴⁸⁾

단(이성적 상상)은 현재 사물의 모습을 통해 다른 물질적 사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상징적인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지옥의 고통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보이는 실재를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도 중에 부정확한 생각이나 상상이 떠오르는 것에 대항하여 싸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에게는 특별히 미래의 악에 대한 숙고가 맡겨지고 [...] 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육체적 감각으로부터 훨씬 멀리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⁴⁹⁾ [...] 지옥의 고통은 육체적 감각으로부터 훨씬 멀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면 단의 협조로 마음의 눈 앞에 갖다 둘 수 있습니다.⁵⁰⁾ [...] 거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잡한 생각으로 충동당하고, 불법한 쾌락으로 자극을 받는 것을 느끼는 만큼, 그만큼 유혹에 빠질 때 마음의 눈 앞에 미래의 고통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 숙고로, 마음은 추한 쾌락 전에 불법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이 방법으로 즉시 별을 피하고, 잘못된 쾌감을 단죄합니다.⁵¹⁾

납탈리(영적 직관)는 천상 예루살렘과 같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선에 대한 상상을 통해 영적인 직관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재적인 사물’이나 ‘허구적 사물’

47) Utitur nichilominus, ut dictum est, translatione, quando rerum visibilium quamlibet descriptionem transfert ad rerum invisibilium significationem. Verbi gratia: Audit in Scripturis nominari lucem, sicut de Deo scriptum est quia inhabitat lucem inaccessibilem. Quaerit ergo quae lux ista sit incorporea quam inhabitat invisibilis et incorporea Dei natura, et invenit quia lux ista est ipsa Dei sapientia, quia ipsa est lux vera. P.L. 196, 15D.

48) **Neptalim namque comparatio vel conversio interpretatur.** Solet namque cognitam quamlibet rerum visibilium naturam convertere ad spiritualem intelligentiam. Quia ergo pene quicquid scriptum reperit ad spiritualem intelligentiam convertit, recte conversionis nomen accepit. P.L. 196, 16A.

49) Ad Dan itaque specialiter pertinet consideratio futurorum malorum [...] Dan nichil novit nisi corporalia, sed ea tamen rimatur quae longe sunt a sensu corporeo remota. P.L. 196, 12C-D.

50) Infermalia tormenta longe a sensu corporeo remota non dubitamus, quia ubi vel qualia sint videre non possumus, sed tamen haec quotiens volumus per ministerium Dan prae oculis cordis habemus. P.L. 196, 12D.

51) Sancti etenim viri, quotiens se sentiunt turpibus cogitationibus pulsari, et ad illicitam delectationem incitari, totiens solent in ipso etiam temptationis aditu futura tormenta ante mentis oculos ponere, et ex tali consideratione quicquid illicitum mens suggerit ante turpem delectationem extinguere. Hoc igitur modo in se statim per cconsideratione poenae ulciscuntur et damnant blandimenta culpae. P.L. 196, 13D-14A.

-황금으로 된 길, 보석으로 된 문-을 통한 상징적 제시를 통해 이루어진다.⁵²⁾ 이런 과정에서 관상의 은총이 상상 안에 주어진다.⁵³⁾

넵탈리에게는 미래의 선에 대한 숙고가 맡겨집니다. 넵탈리는 보이는 사물의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물의 직관으로 옵니다.⁵⁴⁾ [...] 젓과 꿀이 흐르는 땅과 함께 귀한 돌들로 세워진 천상 예루살렘의 성벽과 보석으로 된 문과 금으로 된 광장을 읽게 되면, 정상적인 감각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 하겠습니까? 분명 곧장 영적인 이해로 나아가고, 거기서 신비적인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습니다.⁵⁵⁾

이러한 접근은 ‘세상이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책’이라는 생 빅토르 규율 사제단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⁵⁶⁾ 거룩한 진리는 물질적 실재로 드러나기 때문에 상상에 담길 수 있고, 하느님의 의향으로 인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세에서는 원죄로 인해 이성이 약해지고 흐려져 있다. 그렇지만 수련을 거쳐 올바르게 질서 잡힌 상상력은 물질적 상징을 진리로 가는 중요한 길로 삼아 관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물질적 상징들은 거룩한 사물을 생각할 때 시작하는 길이다. 또한 그것들은 표현되지 않고 통교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상징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때문에 영적인 삶을 위해 상상력은 거부되기보다는 수련을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⁵⁷⁾

2.2. 절제(가드)/인내(아세르)

절제(가드)를 통해서 우리는 음식과 음료의 절제를 이해한다.⁵⁸⁾ 절제의 덕을 통해 우리는 원하지 않는 불행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드는 ‘행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52)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5.

53) DiLorenzo, Raymond D. *Imagination as the First Way to Contemplation*, 92.

54) ad Neptalim autem speculatio futurorum bonorum.[...] Neptalim per rerum visibilium fomam surgit ad rerum invisibilium intelligentiam. P.L. 196, 13B.

55) Sed cum terram lacte et melle manantem, coelestis Ierusalem muros ex lapidibus pertiosis, portas ex margaritis, plateas ex auro legerit, quis sani sensus homo haec iuxta litteram accipere velit? Unde statim ad spiritualem intelligentiam recurrit, et quid ibi **misticum contineatur exquirat**. P.L. 196, 13A.

56)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6.

57)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4.

58) quod per Gad, [...] illam quae in cibo et potu est abstinentiam intelligere debemus. P.L. 196, 19A.

행복의 기쁨은 두 가지로부터 생겨납니다.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진 이를 복되다고 합니다. 그는 천상에 대한 갈망으로 세속의 욕망을 미워하고, 절제를 통해 완전히 어디서나 자신의 원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절제에 엄격한 가드는 행복이라는 뜻으로 옳게 불립니다.⁵⁹⁾

인내(아세르)는 하느님 때문에 기꺼이 세상의 억압을 견디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위해서든, 영혼의 참된 원수는 육적인 쾌락입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어떤 부정한 즐거움이 고통 중에 남아있을 여지가 있습니까? 그 고통은 아세르가 하느님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깊어질 뿐 아니라 기꺼이 가까이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습니까? 오 참으로 올바른 아세르여, 그 이름은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되도다. 의로움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⁶⁰⁾

절제와 인내는 영혼이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 고요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그대는 ‘마음의 평화나 고요가 얼마나 크면, 이 세상의 쾌락을 갈망하지 않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가드를 통해서 얻어지고, 다른 것은 아세르를 통하여 얻어집니다.⁶¹⁾

절제와 인내의 수련의 목적은 수련자가 현세의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고, 쾌락이 야기하는 몸과 영혼의 고통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절제와 인내는 수련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영혼과 양심을 외부에서 지키는 역할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⁶²⁾

59) Duo enim sunt ex quibus constat gaudium beatitudinis, carere scilicet eo quod nolis, et habere quod velis. **Felicem** siquidem dicimus qui nil patitur quod nolit, et illum **beatum** iudicamus cui suppetunt quae cupit. Qui igitur pro coelestium desiderio saeculi voluptatem odit, profecto per abstinentiam hostem suum ubique declinare poterit. Recte ergo rigor abstinentiae **Gad, id est felicitas**, dicitur. P.L. 196, 18BC.

60) Veri utique animae hostes, carnales sunt delectationes. Sed quis, quaeso, locus pravae delectationi inter tormenta relinquitur, quae iste noster Aser propter Deum non solum patienter ferre, sed etiam ardentius appetere comprobatur? O quam recte Aser, id est beatus, dicitur, secundum illam Domini sententiam: *Beati qui persecutionem patiuntur propter iustitiam.* (Math 5, 10) P.L. 196, 23C.

61) Quanta enim, putas, pax cordis est vel tranquillitas, nulla huius mundi oblectamenta concupiscere, nulla eius adversa formidare? Quorum unum per Gad adipiscitur, alterum per Aser obtinetur. P.L. 196, 18A.

우리의 양심은 집 또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선한 영혼은 풍요롭습니다. 거기서 앞서 말한 여종들의 깨어있는 자녀들이 열심히 그것을 지킵니다. 즉, 단과 납탈리가 도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가드와 아세르가 원수의 공격을 용감하게 맞섭니다. 즉, 그들의 지혜가 도시를 평화롭게 하고, 그들의 항구함이 원수들을 물리칩니다.⁶³⁾

영혼의 성과 그것을 지키는 것에 관한 주제는 후대 신비주의 저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감각’과 ‘상상’은 관상을 준비하는데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 이 수련의 과정에서 상상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그가 ‘상상의 수련’을 ‘감각의 수련’보다 앞세운 것은 먼저 불필요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고요해져야 감각의 욕구도 조정되고 침잠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⁴⁾ 상상의 통제를 몸의 통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리카르두스는 당시 통용되던 수덕실천의 우선 순위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⁶⁵⁾

상상과 감각의 수련에 이어서 정서(레아)의 세 자녀인 ‘내적 기쁨’(이사카르), ‘악에 대한 미움’(즈볼룬), ‘잘못에 대한 수치심’(다나)이 태어난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의 성장을 의미한다.⁶⁶⁾

2.3. 내적 기쁨(이사카르)

이사카르의 탄생은 내적인 삶의 시작을 알린다. 안내로 외부의 감각적 즐거움을 이겨낸 사람은 내적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한다.

어떤 이치로 영적인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만일 자기 마음에 들어가고, 내적으로 사는 것을 숨기지 않는 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내적인 기쁨입니다. 이 영적인 감미로움은 내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섯

62)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5.

63) Haec est domus, vel civitas illa, conscientia videlicet nostra, in qua spiritualium bonorum divitiae abundant, cum eam praedictarum ancillarum filii vigili sollicitudine custodiant: Dan videlicet et Neptalim, satagentibus in confirmanda pace civium, Gad et Aser viriliter agentibus in expugnatione hostium. Horum namque prudentia cives pacificantur, illorum constantia hostes expugnantur. P.L. 196, 25B.

64)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40.

65)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6.

66) *Ibid.*, 17.

번째로 태어난 레아의 아들은 기쁨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주요 정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질서 잡혀 있을 때라야 올바르게 야곱과 레아의 아들 가운데에 꼽힐 수 있습니다.⁶⁷⁾

내적 기쁨은 현세와 영원한 나라의 경계에 머무는 상태의 체험이다. 현세로부터 멀어졌으나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았고, 마음의 고요와 안정의 상태에 들어갈 준비가 거의 다 되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아직 현세적 갈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휴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상태다.⁶⁸⁾ 그리고 마음의 초월을 미리 조금 맛보는 상태다.

‘이사카르, 힘센 당나귀, 변방에 살면서 좋은 휴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 그는 경계에 살았습니다. 가장 겸손했고, 현세적 삶의 선에 아주 조금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이 땅의 끝을 차지하였습니다. 종종 마음의 초월로 생명의 선물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그 좋은 땅의 시작을 만져보았습니다.⁶⁹⁾

소란스러운 상상과 육체적 욕구에 끌리는 감각을 고요히 만든 후에 잠시라도 모든 악을 잊을 수 있다면 그는 내적 기쁨과 평화의 시작에 들어갈 수 있다.⁷⁰⁾

그 내적 평화와 쉽으로 잠시만이라도 지금 모든 불행을 잊을 수 있는 이는 행복합니다. 마음의 산란함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참된 행복의 샘에 갈망이 고정됩니다.⁷¹⁾

67) Qua ergo ratione spirituales delicias cognoscat, nisi qui ad cor suum intrare et intus habitare non dissimulat? Unde et ei dicitur: *Intra in gaudium Domini tui.* (Mt 25,21) Hoc itaque internum gaudium, spiritualis ista dulcedo quae intus sentitur, est ille filius Liae qui ei quinto loco nascitur. Est enim gaudium, ut superius iam diximus, unus de principalibus affectibus. Hic autem, cum ordinatus est, recte inter filios Iacob et Liae annumerari potest. P.L., 196, 25D.

68)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6.

69) *Ysachar asinus fortis, habitans inter terminos, vidit requiem quod esset bona, et terram quod esset optima.* (Gen 49,14-15) [...] qui inter terminos habitabat. Quia vilissimis, quia paucissimis huius vitae bonis contentus erat, huius terrae miserae extrema tenebat. Quia per frequentes mentis excessus perennis vitae bona praegustabat, illius bonae terrae initia tangebatur. P.L. 196, 28B.

70) Ineke van 't Spijker, *Fictions of the Inner Life*, 140.

71) O felicem, qui potuit, vel ad horam, omnium malorum oblivisci, et illa interna pace vel requie saltem ad modicum potiri ! Felicem nichilominus, cui datum est dispersiones cordis in unum colligere, et in illo verae felicitatis fonte desiderium figere. P.L. 196, 29B.

모든 악을 잊기 위해 필요한 ‘집중’은 잠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망의 고정’은 수련자가 무한히 반복하며 향해야 할 중심이다.⁷²⁾ 그리고 이러한 ‘내적 기쁨’에 이어지는 수련의 열매는 ‘악에 대한 미움’과 ‘수치심’이다.⁷³⁾

2.4. 악에 대한 미움(즈불론)

리카르두스가 말하는 ‘악에 대한 미움’은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공동체의 선의를 위해 영적으로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악에 대한 미움’의 덕에서 리카르두스는 비판해야 할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를 주장한다. 또한 그는 악습을 꾸짖는데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열정과 가혹함으로 인해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경계한다.⁷⁴⁾

즈불론은 자신이 아니라 형제들의 유익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한 이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이 되도록 합니다.⁷⁵⁾ [...] 즈불론은 부족한 이들을 붙들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환란의 시기에 박해자들을 대항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열정이 아닙니다. 만일 보호하기보다 파괴하기에 더 잘 준비된다면 즈불론이라 참되게 불릴 수 없습니다.⁷⁶⁾

‘악에 대한 미움’은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겉손을 표방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정의에 대한 열정을 표방하면서 분노의 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⁷⁷⁾ 공동체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에서 단죄해야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진보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무엇일지 관심을 갖는 것은 리카르두스의 특징적 가르침이다.⁷⁸⁾

어떤 이들은 겉손을 지켜서 부족한 이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적 사랑을

72) Ineke van 't Spijker, *Fictions of the Inner Life*, 140.

73) *Ibid.*, 139.

74)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7-18.

75) Utilitatem tamen eorum Zabulon quaerat, non suam, ut quod delinquentes ferit ad utilitatem sit, non ad vindictam. P.L. 196, 31C.

76) Debet autem Zabulon non solum delinquentes corripere, sed etiam eos tempore tribulationis contra persequentes defensare. Alioquin verus zelus non est, nec Zabulon veraciter dici potest, si paratior est ad feriendum, quam ad protegendum. P.L. 196, 31C.

77) Ineke van 't Spijker, *Fictions of the Inner Life*, 140.

78)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7.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죄를 짓는 이들을 폭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럼 어떤 이들은 주님 때문에 열정을 부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덕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는 덕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와 반대로, 많은 이들은 분명 분노의 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올바른 열정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 그들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미움으로 자신을 수련하는 척하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⁷⁹⁾

‘악에 대한 미움’의 덕은 타인을 비판하여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비판은 반드시 ‘회복’을 최종목적으로 삼아야 한다.⁸⁰⁾

2.5. 수치심(디나)

‘수치심’은 악에 대한 미움에 이어 생겨난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심’은 죄 자체에 대한 수치심과는 달리 악습에 노출되고 그것에 붙잡혔던 것에 대해 알아차릴 때 느끼게 되는 것이다.⁸¹⁾ 디나의 삶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스캠에게 겁탈당한 것이다. 스캠의 아버지인 하모르는 ‘교만’을 아들은 ‘허영’을 상징한다. 이것은 ‘영적 교만’과 ‘이기주의’의 위험에 대한 성찰을 의미한다. 스캠은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디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할례를 한다.⁸²⁾

그런데 스캠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또 누구입니까? 이 이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캠은 어깨 또는 노동으로 번역됩니다. 하모르는 당나귀가 내는 소리입니까? 만일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더 빨리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디나를 위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자신의 창피함을 때문에 할례를 합니다. 나는 말합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뛰어난에 대한 사랑이나 헛된 영광에 대한 사랑과 다른 것입니까? 그런 아버지에게서 그런 이들이, 교만에서 허영이 (나옵니다).⁸³⁾

79) Alii, quasi obcustodiam humilitatis, delinquentes increpare non praesumunt; alii, ne caritatem fraternam perturbare videantur, peccantes arguere metuunt. Sic et alii aliis atque aliis adhuc modis, quod zelare pro Domino nolunt, virtutis hoc esse fingunt, vel virtutem esse credunt. Econtra, multi quod absque dubio agunt in spiritu furoris agere se arbitrantur zelo rectitudinis, et quae veraciter exequuntur odio hominum, exercere se putant vel simulant odio vitiorum. P.L. 196., 30D-31A.

80)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8.

81) *Ibid.*, 18.

82) Ineke van 't Spijker, *Fictions of the Inner Life*, 141.

83) Sed quis est Sichem, vel quis pater eius? Vel quid sibi volunt huiusmodi nomina, Sichem qui

둘째는 스켄과 그의 장정들을 시메온과 레위가 죽인 것이다. 리카르두스는 시메온과 레위를 자신의 영적 지도아래 있는 이들에게 너무 심한 수련을 요구하고 처벌에 지나치게 냉혹한 부적절한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레위와 시메온은 스켄을 올바르게 지도하기보다 죽이기를 선택한다.⁸⁴⁾

그들 안에 의로운 신중함의 정도를 넘어서는 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욕에 대한 복수에서 동등함의 기준을 겨우 지켰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경망한 담대함을 비난하였습니다. 엄격함과 무분별함을 옳게 꼬집었습니다. 비록 다나를 위해서 할례를 한 것이지 하느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에 대한 참된 경배로 이끌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예견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죽음으로 치기보다 말입니다.⁸⁵⁾ [...] 그들에 대해서 야곱이 제대로 말합니다. ‘시메온과 레위는 형제들이고, 부당한 싸움의 도구들이다. 내 의견은 그들의 의견과 같지 않다. 그들 무리에 내 영광이 있지 않다.’(창세 49,5-6) 오 전쟁광들, 그들은 강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평화의 친구들을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죽입니다. ‘부당한 싸움의 도구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 의견을 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얻게 될 것을 미리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얻게 될 것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⁸⁶⁾

이처럼 불의에 대한 과도한 미움과 영적 지도에서의 지나친 엄격함 등을 거치고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린 뒤 갖게 되는 부끄러움이 있다. 이것이 다나가 의미하는 바이다. 영적지도자는 ‘영적 성장의 본성과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있는 특수한 것들’을 통찰할

interpretatur humerus vel labor, et Emor quod sonat asinus? Sed si eorum facta consulimus, qui sint citius invenimus. Qui enim sunt, qui solent non tam pro Deo quam pro Dina, non tam pro conscientia quam pro verecundia pudenda sua circumcidere, qui, inquam, alii erunt, quam amor propriae excellentiae, et amor vanae gloriae? Talis filius de tali patre, de amore propriae excellentiae amor vanae gloriae.

84)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7.

85) Malum tamen in eis fuit iustae severitatis modum excedere, et in ulciscenda iniuria aequitatis mensuram minime servasse. Merito ergo Iacob inconsultam eorum audaciam redarguit, severitatemque tam indiscretam iuste reprehendit. O quanto satius erat viros, quamvis non tam pro Deo quam pro Dina circumcisos, ad verum Dei cultum paulatim perducere, quam inopinata et repentina morte percutere ! P.L. 196, 40B.

86) Unde eis recte per Iacob dicitur: *Symeon et Levi fratres, vasa iniquitatis bellantia, in consilium eorum non veniat anima mea, et in coetu eorum non sit gloria mea.*(gen 49,5-6) O quales bellatores, qui dum fortiter egisse videri volunt, pacis suae socios tam crudeliter quam violenter occidunt! *Vasa iniquitatis bellantia, sed in consilium eorum non veniat anima mea.* O viros inconsultos, qui dum id praesumunt quod efficere non possunt, illud etiam amittunt quod efficere potuerunt ! P.L. 196, 42B.

필요가 있다. 이것은 리카르두스의 가르침들 중 가장 탁월하다.⁸⁷⁾

상상과 감각의 수련 이후 생겨나는 이상의 세 가지 정서는 우리의 영혼이 좀 더 성숙한 자세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 이어서 ‘식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이 따라온다.

3. 영적 성장을 통해 생겨나는 이성(라헬)의 열매들

‘수치심’으로 자신의 내적 자세를 고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이성(라헬)으로부터 ‘식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앎’(요셉)이 생겨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은 ‘하느님에 대한 앎’(벤야민)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또한 하느님에 대한 앎은 모든 이성적 추리를 넘어서야 (라헬의 죽음) 가능하다.

3.1. 식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앎(요셉)

요셉의 탄생은 ‘식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이 정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로, ‘식별’에 대해서 리카르두스는 카시아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카시아노(Ioannes Eremita Cassianus, 360-435)는 식별을 두 가지 뜻으로 요약하고 있다. 하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는 과도할 수 있는 충동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역할이다.⁸⁸⁾ 수련자는 식별을 통해 사물의 본질에 대해 알게 되고, 과도함을 피하게 된다.⁸⁹⁾ 덕이 식별을 통해 조정되지 않으면 악습이 된다.⁹⁰⁾

87)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9.

88) Videtis ergo non terrenum nec paruum esse discretionis munus, sed divinae gratiae maximum praemium. Quam nisi monachus omni intentione fuerit adsecutus et ascendentium in sese spirituum discretionem certa ratione possederit, necesse est eum velut in nocte caeca tetrisque tenebris oberrantem non solum perniciosis foueis ac praeruptis incidere, sed etiam in planis ac directis frequenter offendere: Jean Cassianus, “Conferences I-VII”, ed, E. Pichery, in *Sources Chrétiennes* 42, (Paris, Cerf, 1955), 111-112; 식별의 온사는 세속적인 것이거나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위대한 신적 은혜의 증여입니다. 수도사가 철저히 집중하면서 이 은혜를 구하며 자기 내면에 들어오는 영들과 관련하여 확실한 이치로 영들을 식별하지 않는다면, 어둔밤에 방황하는 사람처럼 위험하게 배수로에 빠지고 가파른 비탈에서 미끄러질 뿐만 아니라 평탄한 지름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요한 카시아누스, 『담화집』, 엄성욱 번역, (서울: 은성출판사, 2013), 64.

89) G. Dumeige, *Richard de Saint-Victor et l'idée chrétienne de l'amour*, Paris, 1952, p. 65.

90) André Cabassut, “Discrétion”, in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III*, ed., M. Viller et al, (Paris, Beauchesne, 1957), 1323.

모든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질서 잡히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종종 절망에 빠집니다. 과도한 고통은 괴로움에, 조정되지 않은 희망은 지레짐작에, 넘치는 사랑은 아첨에, 잉여의 기쁨은 흐트러짐에, 무절제한 분노는 격노에 빠집니다. 만일 식별을 통해서 조정되지 않으면 덕은 악습으로 변합니다. 덕의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하여, 어떤 방도로든 모두 식별의 덕을 필요로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⁹¹⁾

영혼은 식별의 도움을 받아 주변의 부추김에 흔들리지 말고 질서와 한계 안에 머무를 때 덕을 쌓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절도 없이 무모하게 과용을 부리면 위선의 범죄에 빠지게 된다.

영혼은 모든 정서가 한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종 요셉의 형제들은 큰 것을 시도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사방에서 ‘잘해, 잘해’라는 함성이 들립니다. 그들은 무용한 것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에 손들을 뻗칩니다. 종종 영혼의 정서는 어떤 아첨하는 환호로 인해 절도 없이 무모함을 풀어놓습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무모함으로 인해 마음의 지향을 잃고 위선의 범죄에로 이끌리고 버려집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범죄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사람으로부터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⁹²⁾

둘째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울이다. 하느님을 뵈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거울을 닦아야만 한다. 이 거울을 닦고 나서, 그리고 이 거울을 오랫동안 들여다 보고나서 하느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내면의 빛으로부터 마음은 자신을 넘어서는 빛을 볼 수 있다.⁹³⁾

91) *Caute ergo circa omnes debet custodiri, ut non solum sint ordinati, sed etiam moderati*, Timor enim nimius saepe cadit in desperationem, dolor nimius in amaritudinem, spes immoderata in praesumptionem, amor superfluous in adulationem, laetitia supervacua in dissolutionem, ira intemperata in furorem. In hunc itaque modum virtutes in vitia vertuntur, si per discretionem minime moderentur. Videsne quemadmodum ceterae omnes virtutem discretionis requirant, ne virtutis nomen amittant? P.L. 196, 47D.

92) *Nichil a se animus difficilior extorquet, quam ut in omni affectione sua modum servet*. Saepe etenim fratres Ioseph Magnum aliquid molientes, dum eis undique acclamatur: *Euge, euge*, solent non solum ad inutilia, verum etiam ad impossibilia conatus sui manus extendere. Frequenter siquidem **animi affectus** ex huiusmodi adulantium acclamatione ad immoderatam praesumptionum audaciam effrenatur, immo etiam, multoties per ipsam mentis intentione depravata, usque ad ypocrisis crimen deducitur atque deicitur. Hoc est illud crimen pessimum, et prae ceteris abhominandum. P.L. 196, 50B.

93) 그루버는 리카르두스가 빛의 시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었음을 강조한다. 리카르두스가 디오니시우스를 포함하여 동방 그리스도교 저자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이 강조한 신비체험의 측면을 리카르두스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19, 22.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을 보기를 갈망하는 이는 자기 거울을 씻고 자기 영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거울은 참된 요셉이 붙잡고, 닦고, 끊임없이 들여다 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살펴보고, 오랫동안 부지런히 성찰하면, 그에게 어떤 거룩한 빛의 밝음이 안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흔하지 않은 시현의 무한한 빛이 그의 두 눈에 나타납니다. 이 빛은 그의 눈을 빛나게 합니다.⁹⁴⁾

이성에 나오는 식별은 정서와 상상과 감각의 모든 자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조정한다.⁹⁵⁾ 이러한 식별(요셉)의 역할처럼 리카르두스는 규율 사제단 공동체의 모든 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부족함이나 과도함이 없도록 살폈다. 그는 균형있고 참되게 식별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신비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⁹⁶⁾ 이것은 오늘날에도 신학교나 여러 공동체 안에 있는 영성지도자에게 요청되는 모습이다.

3.2. 관상(벤야민)

‘식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앎’(요셉)이 무르익고 나면 이어서 ‘하느님에 대한 앎’(벤야민)이 생겨난다. 하느님에 대한 앎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믿음을 통하여 아는 것이고, 둘째는 이성적 사유를 통하여 아는 것이고, 셋째는 관상을 통하여 아는 것이다.

우리는 현세에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단계의 구분을 통해서 세 가지 하늘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이 믿음을 통하여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이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관상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첫째는 이성보다 아래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과 함께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을 넘어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하늘에 사람이 오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넘어서고, 지성의 벗어남을 통해 사로잡힌 이들이 아니면 결코 이성을 넘어서는 경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넘어서는 관상은 벤야민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관상에는

94) Tergat ergo speculum suum, mundet spiritum suum, quisquis sitit videre Deum suum. Hoc itaque speculum non desinit verus Ioseph tenere, tergere et indesinenter inspicere[...] Exterso autem speculo et diu diligenter inspecto, incipit ei quaedam divini luminis claritas interlucere, et immensus quidam insolitae visionis radius oculis eius apparere. Hoc lumen oculos eius irradiaverat. P.L., 196, 51D.

95) 리카르두스는 정서의 질서(ordinatus)와 조정(moderatus)이 이루어져야 덕이 됨을 강조하였다. 무질서한(inordinatus) 정서가 성독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질서를 이루었지만 아직 과도함(immoderatus)을 벗지 못할 수 있다. 이때 이성(ratio)에서 나오는 식별력(discretio)을 조정(moderatus)해 주어야 한다.

96)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8; Jean Chatillon, “Autour des Miscellanea attribues à Hugues de Saint-Victor”, *Revue d'ascétique et de mystique*, 24(1949), 305.

라헬의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97)

그리고 관상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성을 넘어서는 관상’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관상’이다. 전자는 ‘라헬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이고, 후자는 ‘벤야민의 탈혼’이 의미하는 바이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관상을 하게 될 때 영혼은 ‘거룩한 계시’(divina revelatio)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때 계시는 교의적인 공적 계시(revelation)이기보다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showing)으로 이해해야 한다.⁹⁸⁾

마지막으로 벤야민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과 포옹한다. 이것은 상상을 통한 ‘묵상’ 중에 ‘관상’이 체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성이 신적 계시를 환대하는 것을 뜻한다.

벤야민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들에 대한 관상으로부터 현세적인 것에 대한 마음의 직관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고, 영원한 빛으로부터 거의 천상의 꼭대기에서 어둠에 지성의 빛을 내려주는 것이고, 혼돈 속에 거룩한 판단의 이치를 매다는 것이 아닙니까?⁹⁹⁾ [...] 라헬의 죽음으로 관상은 이성 위로 올라갑니다. 벤야민이 이집트로 들어감으로 해서 관상은 상상에까지 내려갑니다. 벤야민과 요셉의 입맞춤으로 인간적 이성은 거룩한 계시 에 박수를 보냅니다.¹⁰⁰⁾

97) Possumus tamen illam quae in hac vita haberi potest Dei cognitionem tribus gradibus distinguere, et secundum triplicem graduum differentiam per tres coelos dividere. Aliter siquidem Deus **videtur** per fidem, aliter **cognoscitur** per rationem, atque aliter **cernitur** per contemplationem. [...] Prima est infra rationem, secunda cum ratione, tertia supra rationem. Ad primum itaque et secundum contemplationis coelum homines sane ascendere possunt, sed ad illud quod est supra rationem, **nisi per mentis excessum supra seipsos rapti nunquam pertingunt**. Quod autem per Beniamin illud contemplationis genus quod supra rationem est intelligere debeamus, ex matris eius morte convenienter satis conjicere possumus. P.L. 196, 53CD.

98) Grover A., Zinn., ed. *The Twelve Patriarchs*, 20; Haec sunt itaque duo illa genera contemplationum, quorum unum ad mortem Rachel, alterum pertinet **ad Beniamin excessum**. In primo Beniamin interficit matrem, ubi omnem supergreditur rationem; in secundo autem etiam seipsum excedit, ubi in eo quod ex divina revelatione cognoscit, humanae intelligentiae modum transcendit. P.L. 196, 62A.

99) Quid est Beniamin in Aegyptum descendere, nisi ab aeternorum contemplatione ad temporalia contemplanda intuitum mentis revocare, et ab aeternitatis luce quasi de coeli vertice usque ad mutabilitatis tenebras intelligentiae radios deponere, et in tanta alternantium rerum confusione divinorum iudiciorum rationem pendere, et ex magna parte penetrare? P.L. 196, 62C.

100) In morte Rachel contemplatio supra rationem ascendit; in introitu Beniamin in Aegyptum contemplatio usque ad imaginationem descendit; in deosculatone Beniamin et Ioseph divinae revelationi humana ratio appaludit. P.L. 196, 64A.

이처럼 리카르두스는 ‘상상을 통한 묵상 중에 관상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고 관상에 있어서 상상의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에서 말하는 ‘상상을 통한 관상’의 영성사적 뿌리를 하나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상상의 수련은 우리의 내면을 질서를 바로잡고 하느님을 향하도록 한다.

나가는 말

리카르두스는 규율 사제단의 수련장으로서 새로운 입회자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였고, 수련 후에도 계속해서 지도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돕는 직무를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그가 실천적인 수련방법과 영적인 지도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였다.¹⁰¹⁾ 맥긴(Bernard McGinn)은 『황금편지』(Epistola ad fratres de Monte-Dei)를 쓴 시토회의 생 티에리의 기욤(Guillelmus S. Theodoric, 1075-1148)보다도 리카르두스가 영적 수련의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을 더 잘 결합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¹⁰²⁾

리카르두스는 작품 속에서 영적 지도자가 수련자에게 무엇을 수련시키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할지, 동료 영성지도자들이 수련자들에게 과도할 때는 어떤 조언을 해야하는지 등 영성지도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¹⁰³⁾

그런데 12세기 리카르두스의 이 작품을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수련과 영적 지도를 위한 로드맵인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은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종교개혁의 열매이다. 리카르두스처럼 16세기 가톨릭 교회 내의 종교개혁가들도 영적인 성장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련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영성지도자를 양성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리카르두스와 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쇄신을 외부에서 추구하지 않고 내적인 변화와 질적인 심화에서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1) 그는 작품속에서 ‘구성원들 가운데 육체를 극복하는데 과도한 열정을 부리거나,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수행에 게으를 때, 혹은 영성 지도를 하는 이가 피지도자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고민도 담아 두었다.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1.

102) Bernard McGinn, *The growth of mysticism*, 401. 『황금편지』에서는 영적성장 과정을 동물적 인간, 이성적 인간, 영성적 인간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 성장과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103) Grover A. Zinn Jr. *Personification Allegory*, 198.

코로나 이후에 신자들의 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반드시 주일미사에 나오지 않아도 평화방송을 보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았어도 자신을 냉담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코로나이후 교회를 찾는 예비자들은 신자들보다 더 진지한 것 같습니다.¹⁰⁴⁾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 다시 외적인 행사와 모임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도 좋을까? 당분간은 아닐 것 같다. 중세에 십자군전쟁(1096-1270)과 흑사병(1346-1354)과 아비뇽 유수(1309-1378)를 겪으면서 영성가들이 제시한 방향이 ‘수련과 영성지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신자들을 내적이고, 영성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 사목자들’이 현재의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 양성해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데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4) 2024년 2월 21일 서울교구 사제연례피정 중 인터뷰.

참고문헌

1차 자료

- A Sancto Victore, Hugonis De., “De modo Orandi”, in *Patrologia Latina* 176, ed., J-P Migne, Paris, Bibliothecae Cleri Universae, 1854.
- A Sancto Victore, Richardi., “De praeparatione animi ad contemplationem liber dictus Benjamin Minor”, in *Patrologia latina*, 196, ed. J.-P. Migne, Paris, Bibliothecae Cleri Universae, 1855.
- de Saint-Victor, Richard., “Les douze Patriarches ou Beniamin minor”, in *Sources Chretiennes* 419, tran. and ed., Jean chatillon/ Monique Duchet-Suchaux, Paris, Cerf, 1997.

2차 자료

- Bernard, Charles André., *Teologia spirituale*, Torino, Edizioni San Paolo, 2002.
- Coolman, Boyd Taylor., “The Victorines.”, in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Mysticism*, ed., Julia A. Lamm, Blackwell Publishing, 2013.
- Coulter, Dale M., *Per visibilia ad invisibilia: theological method in Richard of St. Victor* (d. 1173), Turnhout: Brepols, 2006.
- de la Cruz, San Juan., *Subida al Monte Carmelo*, Ivory Falls Books, 2015.
- di Loyola, S. Ignazio., *Esercizi Spirituali*, Torino, Edizioni San Paolo, 1995.
- Edstam, Torsten K., “The Reception of the Victorines in Later Centuries”, in *A Companion to the Abbey of Saint Victor in Paris*, Ed., Hugh Feiss/Juliet Mousseau, Boston: Brill, 2017.
- Ford, Jack., “Jacob’s Family as a Symbol of Affectivity in Clistercian and Victorine Psychology”, *Archa Verbi*, 18(2021).
- Mauburnus, Ioannes., *Rosetum exercitioum spiritualium, et sacrarum meditationum*, Bruxell, Dvaci, 1620.
- McGinn, Bernard., *The growth of mysticism*, New York, crossroad, 1994.
- Orsbon, David Allison., “Restoration through Experiential Exegesis”, in *Victorines Restoraion: Essays on hugh of st victor, richard of st victor, and thomas gallus*, ed., Porwoll, R.J., Orsbon, D.A., Brepol, 2021.

- Oury, Dom Guy-Marie., *Histoire de la spiritualité*, Tours, C.L.D, 1993.
- Pourrat, P., “Affections”, in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ed., M. Viller, Paris, Beauchesne, 1937.
- Spijker, Ineke van 't., *Fictions of the Inner Life Religious Literature and Formation of the Self in the Eleventh and Twelfth Centuries*, Turnhout, Brepols, 2004.
- Zinn, Grover A. Jr. “Personification Allegory and Visions of Light in Richard of St Victor’s Teaching on Contemplation”,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46 (1977, 3).
- 보에티우스, 『철학의 위안』, 박문재 옮김, 과주: 현대지성, 2018.
-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 『영성신학』, 정제천/박일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3.
-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정제천 옮김, 서울: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016.
- 십자가의 성요한, 『가르멜의 산길』, 최민순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18.

생 빅토르의 리카르두스의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 연구

정태영

코로나 이후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현재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 중에 내적인 삶을 의도치 않게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룬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은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개혁운동의 열매로 생겨난 생 빅토르 규율사제단의 리카르두스가 12세기에 쓴 작품이다. 이 작품은 ‘수련과 영성지도’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3-14세기 십자군 운동과 흑사병, 아비뇽 유수 등을 겪고 난 후 15-16세기에 다시 유명해졌다.

교회는 외적인 위기를 겪고 나면 내적인 면에서 해결책을 찾았는데 15-16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영성가들은 ‘수련과 영성지도’를 한 가지 답으로 제시하였다. 현재의 상황도 비슷한 점이 많다.

만일 코로나 이후인 지금 신자들에게 다시 외적인 교회의 삶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오히려 이제 조금 알게 된 내적인 삶을 더욱 깊고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시점에서 사목자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관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소벤야민』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관상, 소벤야민, 수련, 영성지도, 코로나 19

A Study on “De praeparatione animi ad contemplationem: Benjamin minor” written by St.Victor Ricardus

Jeung, Tae-Young

The religious life of believers is showing many changes after the Corona Pandemic. Some people point out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problematic based on the pre-coronavirus standard. However, some people unintentionally experienced inner life during the Corona Pandemic period and they say it was a good time.

『De praeparatione animi ad contemplationem: Benjamin minor』 covered in this paper is a work written in the 12th century by Ricardus of Saint-Victor, which was one of results among Pope Gregory's reform movement. This work presents a roadmap for 'spiritual exercise and guide' Historically, it became famous again in the 15-16th centuries after experiencing the Crusades, the Black Death, and the Avignon Exile in the 13-14th centuries.

After experiencing an external crisis, the church usually looked for a solution internally, and it happened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as well. At the time, spiritual leaders suggested 'spiritual exercise and guide' as an answer. The current situation after Corona pandemic has many similarities.

If we only hope that believers might return to the external church life now after the coronavirus, it will fail. Rather, what spiritual leaders should do at this point is to help people live deeper and more balanced inner life, which they have now learned a little about. I hope that this study could serve as a clue.

Key Words: Contemplation, Benjamin Minor, Exercise, Spiritual Guide, Corona 19

논문 투고일	2024년 2월 22일
논문 수정일	2024년 4월 1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4년 4월 1일
